

현대적 사회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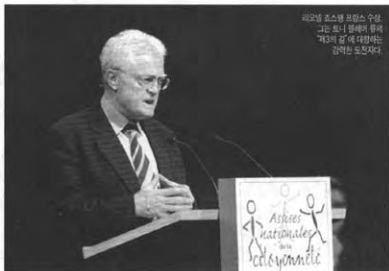
역자: 박장현

독일 브레멘대 박사과정

원문출처 Finchelstein, Gilles, Au coeur de la social-démocratie européenne, in: Le socialisme moderne. Les Notes de la Fondation Jean-Jaurès, n° 15, mars 2000 <http://www.jean-jaures.org/index.html>

역자주 영국 좌파를 평정한 토니 블레어는 1998년 중반부터 클린턴 대통령의 후원을 등에 업고 '제3의 길'이라는 깃발을 휘두르며 유럽대륙의 좌파들을 정복하기 위한 원정길에 나섰다. 블레어 자신이 캐번 협회를 통하여 '제3의 길'이라는 팜플렛을 출간하고, 연초인 기든스가 '제3의 길: 시민주의의 혁신'이라는 책을 발간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1999년 초반까지 '제3의 길' 진영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고, 대륙의 좌파들은 미처 반격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 8월 발표된 블레어/슈퍼더 공동선언문과 그 며칠 뒤에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는 '제3의 길'을 둘러싼 논쟁에서 한 분수령을 이루게 된다. 이 선거에서 '제3의 길' 진영은 참패하였고, 이 무렵부터 대륙 좌파들의 반격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현대적 사회주의' 및 '현실적 이상주의'라는 깃발을 들고 리오넬 조스팽이 반격의 선두에 섰고, 스웨덴 시민주의자들이 그 뒤를 바짝 따랐다. 유럽 시민주의의 최대 세력인 독일 시민단 안에서도 라동덴의 즉흥적 사임으로 한때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당내 좌파세력이 블레어/슈퍼더 공동선언문을 계기로 삼아 본격적으로 반격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후반부터 전세가 뒤집어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11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 제20차 대회는 유럽 좌파의 미래를 조형하는 또 하나의 분수령으로 된다. '제3의 길'이 유럽 시민주의의 보편적인 길이 아니라 영국의 특수한 길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었다. 1999년 말경부터 '제3의 길' 추종자들은 의견을 수정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반면에, 좌파 내부 및 관측통들 사이에 '제3의 길'이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속속 제출되고 있다는 사실도 침언할 만하다.

여기에 번역된 글은 프랑스 사회주의당 산하 장-조레스-재단이 간행한 리오넬 조스팽의 '현대적 사회주의'라는 책자에 실린 편집자 서문이다. 참고로, 이 책자에 담긴 동일한 제목의 글 '현대적 사회주의'는 99년 봄 '사회주의 리뷰' 재창간호에 실린 조스팽의 인터뷰를 서술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영국의 캐번 협회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 대회 직후 이 글을 번역하여 팜플렛으로 출간했는데, 관측통들은 이 사건을 블레어가 조스팽에게 보낸 화해의 제스처로 받아들이고 있다.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수상.
그는 토니 블레어 등과
'개국의 길'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도출했다.

리오넬 조스팽, 유럽 시민주의의 구심점

이겼다! 유럽 시민주의 안에서 한쪽 구석으로 밀려날 뻔했던 리오넬 조스팽이 지금은 오히려 그 구심점으로 되었다.

그러니 이긴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중의 도전, 즉 "사회주의 없는 현대성"과 "현대성 없는 사회주의"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조스팽은 자신의 진로를 유지하고 노선을 확고하게 다지는 동시에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위험 사이에서 올바른 지점을 찾아내야 한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유럽 사회민주주의는 지적인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다. 비록

진행양상과 내용, 그리고 시기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도처에서 이론의 중대한 재구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¹⁾ 영국에서는 어떤가? 영국에서는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의 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 이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그가 자기 나라에서 구사하고 있는 정치전략의 핵심적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독일에서는 이 작업이 게 하르트 슈뢰더의 권력행사와 병행하고 있는데, 특히 슈뢰더가 오스카 라퐁텐을 축출하고, 사민당 안에 있는 이른바 "근본가치위원회"가 가동되면서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1) 특히 Revue socialiste, n°1, printemps 1999 및 Esprit, La pari de la réforme, mars-avril 1999 참조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에서는 이 일이 옛 공산당의 변신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공산당(PCI)에서 "현실"로, 그 조금 뒤에 다시 좌파민주당(PDS)에서 좌파민주연합(DS)로 변신한 각 단계의 흔적을 담고 있다.

바로 이같은 맥락 속에서 1999년 6월, 유럽의회 선거 불과 며칠 전에 「블레어/슈뢰더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²⁾ 이 선언문은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이중적 고립의 위험을 의미하였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첫째, 사회민주주의에서 사회적 자유주의로 선화하는 조류로부터 이 테올로기적으로 고립될 위험이었다. 둘째, 정치적으로 고립될 위험이었는데, 프랑스-독일 사이에 지속되어온 전통적 결속, 그리고 생-달로에서 새로 시작된 프랑스-영국 사이의 대화보다 영국-독일 사이의 결속이 우위를 점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으며,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지난 해 가을에 네 도시, 즉 파리, 플로렌스, 런던, 그리고 베를린에서 차례대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사태의 역전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 "리오넬 조스팽이 주창한 이론이 지금은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중심점으로 되었다"는 테제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되었다.

이 테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첫째, 어떤 지표들을 근거로 이같은 테제를 세울 수 있는가? 둘째, 어떤 이유로 이같은 역전이 가능했는가? 셋째, 어떤 새로운 도전들이 극복되어야 하는가?

지 표

최근에 프랑스 좌파는 경제금융 전문 매체들, 특히 영국과 미국의 매체들이 프랑스 좌파를 정통주의라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극히 만족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이야기가 앞길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프랑스의 최근 경험이 보여주는 독창성과 성공을 강조하고 있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다음과 같은 평가를 인용해보는 것도 무익하지는 않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험은 자본주의가 성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미국과 같은 길을 걸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³⁾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들, 지표들, 상징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따로 떼어놓고 볼 때에는 증거능력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한꺼번에 연관시켜서 볼 때에는 충분히 하나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2) Les Notes de la Fondation Jean-Jaurès. Blair-Schroeder, le texte du Manifeste, les analyse critiques. n 13, août 1999

3) Financial Times, 12월 4일자 1999

것들이다.

첫째, 11월 8~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 대회에서 중력의 중심으로 되었던 것은 리오넬 죠스팽의 담론이었다.

둘째, 11월 20~21일 플로렌스에서 개최된 “진보주의” 정상회담에서 참석자들이 대화의 주된 상대자로 찾은 사람은 리오넬 죠스팽이었다.

셋째, 11월에 영국의 페비언 협회가 출간하기로 선정한 것은 게하르트 슈뢰더가 아니라 리오넬 죠스팽의 팜플렛이었다.

넷째, 페비언 협회가 11월 28일에 런던에서 다시 프랑스-영국 세미나를 조직하였다.

다섯째, 12월 7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독일사민당 전당대회에 귀빈으로 초대된 사람은 토니 블레어가 아니라 리오넬 죠스팽이었다.

여섯째, 리오넬 죠스팽이 주창한 주제들이 사람들의 담론에 점점 더 널리 채택되고 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시장경제에는 찬성하지만, 시장사회에는 반대한다”라는 공식을 이제는 토니 블레어, 게하르트 슈뢰더, 빌 클린턴, 그리고 이탈리아 좌파도 사용하고 있다.

일곱째, 이에 반하여 “제3의 길”을 옹호하던 사람들의 입장은 그 사이에 굴절되었다. 애초에 사민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보편타당한** 길로 생각되

었던 제3의 길은 데이빗 밀리밴드에 의하여 수정되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토니 블레어의 핵심적 정책개발팀의 우두머리로 있는 사람이다. 밀리밴드의 재정의에 따르면 제3의 길은 “지난 세기 영국 진보 진영의 두 사상적 조류 사이에 패인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영국적** 길이다.⁴⁾ 달리 말해서 “립(Lib)”과 “랩(Lab)”, 즉 자유주의자와 전통주의자를 다시 통합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이다.(…)

* * *

이 유

사태의 역전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보완적인 세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첫째, 이론이 매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는 실천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론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것이 그 자체로서 옳기 때문이다. 셋째, 이론이 매력적인 이유는 실천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첫째 가설: 이론이 매력적인 이유는 실천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객관적 지표들만으로는 정책의 성공을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승리자의 자만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4) David Miliband, Ne pas caricaturer la Troisième voie, Le Monde, 26 novembre 1999

지나온 길만 보아서는 안되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의 선거결과 및 주요 경제지표들을 비교해볼 때, 프랑스 좌파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비교검토를 통하여 다른 나라들에서 프랑스의 조스팽 수상 및 좌파연합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다. 한 가지 지표만 들어본다면, 지난 보수당 집권기간 내내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유럽의 주요국들보다 낮았었는데, 오늘날에는 거꾸로 1% 정도 더 높은 실정이다. 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경제발전에서 국가기구가 수행하는 특수한 역할을 입증해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훌륭한 선거결과 또는 경제적 성과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현상들은 담론의 수용상태를 역전시킬 수는 있지만, 담론의 타당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번째 가설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설: 이론이 매력적인 이유는 이론 그 자체가 옳기 때문이다.

조스팽의 이론이 옳은 이유는 그것이 사민주주의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적절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오넬

조스팽은 "체제"로서의 사회주의는 사라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는 현대의 사회주의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직시하고 있으며, 그것의 "경제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위기"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또한 그는 사회주의가 동시대에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예컨대 블레어/슈뢰더 공동선언문이 사회주의가 실패한 점들만 부각시키고 있음에 반하여, 조스팽은 사회주의가 성공한 점들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스팽은 자기 자신을 역사 문화 전통 속에 위치시키고 있다. 혹자는 케트 디송의 분석을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디송은 토니 블레어를 마가렛 대처의 "충실한 후계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신노동당(New Labour)을 "사회민주주의를 혁신하려는 시도"라기 보다는 오히려 "좌파의 가치에 대적하는 전제기구"로 평가하고 있다.⁵⁾ 또는 혹자는 필립 말리에르의 테제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말리에르가 볼 때 블레어주의는 "사민주주의의 혁신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철학 및 정책을 유럽 좌파의 가슴속으로 강제주입"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⁶⁾ 이에 반하여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리오넬 조스팽의 입장이 영국 노동당의 그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 사민주의자들 및 이탈리아 좌파 민주주의자들의 그것

5) Keith Dixon, *Un digne héritier, Raison d'agir*, janvier 2000

6) Philippe Marliere, *Les Temps modernes*, p. 161-182, août-septembre-octobre 1999

과도 구별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조스팽의 이론이 옳은 이유는 또한 그것이 무엇보다도 정치의 역할, 좌우 차이의 엄존성, 10년 후의 사회주의 및 사회주의의 의미 등과 같은 결정적인 문제들에 대한 보편적인 관심에 대답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조스팽에게 있어서는 정치가 출발점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에 대한 성찰, 정치의 특수한 역할 및 고유한 공간에 대한 신념, 그리고 정치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정치의 공간을 충분히 이용하려는 의지가 출발점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80년대 및 90년대를 주도했던 담론과는 달리, 조스팽의 담론은 비록 외적 제약조건들을 감안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앞에 내세운다거나 논거로 끌어들이는 일이 드물다. 그의 담론은 외적 제약론의 논리적 귀결인 불선택정치에 맞서서 능동성을 근거로한 선택정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틀을 통하여 볼 때 정치의 목표를 설정하는 기능, 행위공간을 확보하는 사명, 그리고 새로운 조절장치를 개발하려는 야심을 가지게 된다. 한편, 이렇게 재획득된 자유와 짝을 이루는 것은 거부인데, 거부를 통하여 정치는 사회

적 충돌 및 그에 따른 결과들에 책임을 지게 된다. 무수히 많은 사례들 중에서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자. 국제적 차원에서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대한 거부와 국제무역기구(WTO) 시애틀 정상회담의 실패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자유화가 조절보다 지나친 우위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유럽 차원에서는 영국 쇄고기 수출금지조치의 해제를 거부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일국 차원에서 볼 때 35시간 노동법은 물론 선택정치의 증거이지만, 그밖에도 프랑스로의 민영화 거부, 최저구호금의 인상 거부를 들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이런 거부는 가고싶지 않은 곳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한다.

좌우 구분

정치가 선택을 해야한다면, 그것은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안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구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블레어주의자들의 수사법에 있어서 중심적인 구분은 노동당과 신노동당을 가르는 구분이다. 이에 비하여 조스팽의 담론에 있어서 중심적인 구분은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구분인데, 이 구분은 더묘한 변증법적 운동 속에서 좌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동시에 진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된다.

좌파와 우파 사이의 구분은 정체성의 구성요소로서, 이 구분을 사이에 두고 보



유럽사회당(The Party of European Socialists)

유럽사회당(PES)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사회당, 사회민주당, 노동당의 연합체로 유럽 차원에서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을 강화하고, 회원 정당들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유럽의회 선거에 공동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1992년 창당되었다. 현재 회원 조직은 15개 EU회원국 20개 정당이다. 유럽사회당은 1974년 발족한 유럽공동체사회주의연맹(CSPE)의 후신이다. 사진은 PES의 로고.

* <http://www.pes.org/> 참조

든 민주주의가 구조화된다. 이 구분은 한 쪽 진영, 즉 좌파로의 소속을 확정한다. 조스팽이 "다원적 좌파"라는 전략과 방법을 선택한 것도 이 구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장-크리스토프 캄바델리의 공식에 따르면, 다원적 좌파 안에서는 "배타적 정체성보다 동맹정신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에 분명하다".⁷⁾ 한편, 좌우 사이의 구분은 통일된 행동을 수행하게 만드는 틀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다음과 같이 쓸 정도이다. "블레어주의자들의 사전에서는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거의 추방되어 버렸음에 비하여, 조스팽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마법적 공식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⁸⁾ 끝으로, 좌파와 우파의 구분은 정책의 선택 및 민주적 실무에 있어서 "척도"로 작용한다. 그리고 유럽 차원에서는 예컨대 유럽사회주의당(PSE) 강령의 조형양상도 이같은 척도

로 작용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좌우 사이의 구분은 정책 진화의 촉진제로 된다. 예를 든다면? 치안질서 부문에서 리오넬 조스팽은, 치안 문제에 관한 한 "좌파"도 "우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치안불안이란 제일 먼저 보봉사람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 또한 불평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치안에 부여되고 있는 우선순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경제 부문에서 그는 공공기업 자본의 개방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때 무엇보다도 산업전략과 그에 따른 고용을 논거로 삼고 있으며, 목적과 수단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숙고하고 있다. 사회 부문에서 그는 "노동사회"를 방어하고 "의존사회"를 거부한다는 명분에 따라 최저구호금의 인상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처럼 조스팽에게 있어서는 모든 정책진화가 외적 제약조건을 평가삼아 변명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

7) Jean-Christophe Cambadélis, *L'avenir de la gauche plurielle*, Plon, p.164, octobre 1999

8) *The Economist*, Lionel Jospin, France's would-be president, 15 janvier 2000

가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될 것이다.

미래관

흔히 관측통들은 리오넬 조스팽이 미래에 대한 설계능력보다는 주로 현실적 역관계의 분석에 따라 임기응변 식으로 행동하는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른바 조스팽의 성향을 구성하고 있다는 이 같은 요소들에 아어서 프랑스 사회의 세태가 덧붙여지고 있는데, 짜키 라이디가 강조하는 바에 따르면 오늘날 프랑스에는 “조급성이 사회상황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들 중의 하나로 되어 있어서, 현재를 중시하고 미래를 동한시하는 문화”가 목적될 정도이다.⁹⁾ 이런 틀에 갇혀 있는 리오넬 조스팽이 눈앞의 현실을 넘어 서서 10년 정도 앞을 내다보는 목표들을 확고하게 설정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9년 8월 라로셀 대학의 강연은 바로 이같은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야심의 산물로서, 특히 완전고용에 대한 목표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조스팽이 이 강연을 통하여 다음 대통령 선거에 대한 야심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여기에는 산술적으로 확실한 (10년 = 3년(1999~

2002)+7년(2002~2009, 즉 대통령 임기)) 증거도 있었다.

정치 차원에서 볼 때 조스팽 수상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적용하게 될 지점을 효과적으로 선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다른 차원들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심리 차원에서 볼 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완전고용에 대한 전망은 책임 있는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거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으며, 공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완전고용에 대한 전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할가능한 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어볼 수 있을 만한 일로 되었다. 지난 2년 동안 거처온 과정을 보라.

경제 차원에서 볼 때 어제까지는 “노동의 종말”, “탈임금사회”, “경제성장 정지” 등의 주제들이 범람하면서, 엘티스주의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진보권이 다시 자리를 잡고 있으며, 녹색당의 다니엘 코양 조차 “종말 없는 노동”을 주장할 정도로 되었다.¹⁰⁾

마지막으로 유럽 차원에서 볼 때 유럽 공동의 목표가 확정되었는데, 이 목표는 정치경제, 예산, 재정, 그리고 사회 부문에 대한 구성적 요소로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과와 이론을 분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9) Zeki Laidi, L'urgence ou la dévalorisation culturelle de l'avenir, Esprit, p.8-20, février 1988

10) Daniel Cohen, Nos temps modernes, Flammarion, janvier 2000

양자 사이의 상호관계를 고찰할 수는 없을까? 이를 위해서는 셋째 가설이 필요하다.

셋째 가설: 이론이 매력적인 이유는 실천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이 가설은 여러 방면에서 반박되고 있다. 우선 로랑 모디, 제라르 데포르트 등이 제출하고 있는 공증과도 같은 반박이 있다.¹¹⁾ 이들은 좌파가 집권할 경우 거의 불가피한 현상, 즉 이율배반 현상을 경회하기 위하여 동원되어온 공식, 노력, 노선을 연대기 식으로 꼼꼼하게 조사기록하고 있다. 한편, 미셸 마리아 등은 조스팽의 이론이 현대화론이라고 반박하고 있다.¹²⁾ 이들은 "개량 없는 행동"으로부터 - 개량에 관한 담론을 참작할 것 - "행동 없는 개량"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끝으로 톱랑 위르 등은 조스팽의 이론이 전통주의라고 반박하고 있다.¹³⁾ 이들은 우리가 사회주의의 새로운 시대에 - 이를 재치있게 표현하여 사회주의의 "콘스탄틴"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 즉, "이데올로기만이 순수한 수사법으로 살아남아 있고, 사회적 차원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처해있다고 간주한다. 이상의 분석들은 상호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지점에서는 서로

일치하고 있다. 즉,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 약속과 실현 사이의 거리, 이론과 실천 사이의 동음이의성(同音異意性)에 대한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조스팽과 관련해서는 어쩌면 정반대의 체계가 타당할 것이다. 사실 이론과 실천이 상호 괴리될 가능성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본질적** 괴리는 내용과 관련된 괴리로서, 담론은 좌파적이면서도 실천은 우파적이거나, 또는 그 반대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시간적** 괴리는 순서와 관련된 괴리로서, 실천이 앞서고 이론이 사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때, 한 시대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론과 실천을 부합시키는 구체적 양식인 것이다.

본질적 괴리?

구체적인 사업과 행위의 모순을 파헤치는 일은 언제나 매력 있는 일이며, 현실이 그러한 만큼 언제나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본성상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프랑스 역사를 **소급하여** 분석해볼 때, 지금까지 프랑스 좌파는 담론에 비하여 온전한 실천을 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같은 경향을 꼬집어서 "낙담주의"라는 공식이 붙었을 정도이다. 한편, 여러 나

11) Laurent Mauduit et Gérard Desportes, *La gauche imaginaire*, Grasset, 1999

12) Michel Marian, Lionel Jospin, le socialisme et la réforme, *Esprit*, p.112-121, mars-avril 1999

13) Roland Hureauux, *Les trois age de la gauche*, *Le Debat*, p.29-39, janvier-1 vrier 1999

라들을 비교식으로 분석해볼 때, 이와는 반대되는 괴리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알랭 베르구뉴는 토니 블레어가 “우파적으로 발언하지만, 좌파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오넬 조스팽을 두고 볼 경우, 그는 정책의 총체성을 자칭 또는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전에 보더라도 벌써 미묘한 진화 또는 입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가 심어주고 있는 인상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결정들이 좌파의 근본가치에 비추어 평가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간적 괴리?

이론과 실천 사이의 두 번째 괴리는 시간적 괴리이다.

비교식으로 분석해볼 경우 - 50년대 말의 독일 사민주의자들 또는 90년대 말의 영국 노동당처럼 - 사전 현대화, 즉 권력을 잡기 전에 현대화를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소급식으로 분석해볼 경우, 프랑스는 사후 평가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1982~1983년의 정책선회를 - 또는 적어도 이 선회가 시장과 국가기구 사이의 상호역할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를 - 본격적으로 사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훨씬 뒤의 일로서, 적시하자면 1991년 아르세 전당대회에서 비르소 이루어졌다. 피에르 모르와의 표현법에 따르면

“독일 사민당의 1959년 바드 고테스베르크 전당대회를 뒤늦게 따라잡은” 이 대회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자면 또다시 정치적 현실과 요구 사이의 괴리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상황을 특징짓고 있는 사실은, 조스팽 수상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론과 실천을 부합시키기 위한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 전

블레어/슈뢰더 공동선언문의 발표로부터 시작되어서 조스팽의 팜플렛 “현대적 사회주의”의 출간과 더불어 종결된 일련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사건들은 리오넬 조스팽에게 성공을 가져다주었다. 최악으로 평가하더라도 저지에 성공하였고 (방어적 성공), 최선으로 평가한다면 돌파구를 뚫는데 성공한 것이다(공격적 성공). 그렇지만 유럽에서의 논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유럽 좌파가 공동으로 안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도전이 반드시 다시 머리를 쳐들 것이다. 이 도전은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겨우 윤곽만 드러나 있는 정도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호교차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 즉 사회계급, 국가기구의 역할, 그리고 불평등 문제가 중대하다.

제라르 그뤼빙베르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 문제에 있어서, 특히 “계급 개념의 적절성” 및 “경제권력과 관계양식”과 관련하여, 토니 블레어와 리오넬 조스팽 사이에는 근본적인 의견차이가 있다.¹⁴⁾ 영국 측에서는 “비즈니스” 또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사회를 “이익을 보는 사람들”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로 나누고 있으며, 신노동당과 기업가들 사이의 새로운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려는 야심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측에서는 “사회적 소외자들, 민중계급, 그리고 중간계급 사이의 동맹”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같은 동맹의 한 가지 목적은 자본의 권력에 맞선 대항세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논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양측의 의견은 서로 일치되기 보다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편이다. 둘째, 토니 블레어가 때로는 적절하게 때로는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계급 개념을 두고 볼 때, 그리고 리오넬 조스팽이 경제권력과 관계양식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입장을 두고 볼 때, 이쪽과 저쪽 사이에는 문연중에 일치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국가기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우리의 동지들과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동지들도 다르다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프랑스 좌파로서는 결코 다루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토니 블레어의 측근인 데니스 맥셰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 치하에서 국가기구는 시민사회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이용되는 중앙집중적 권력으로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생겨난 것이 규제자로서의 국가기구, 강력한 국가기구, 민족의지의 화신으로서의 국가기구이다.”¹⁵⁾ 독일 수상 게하르트 슈뢰더는, 프랑스 좌파와는 정반대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민주주의는 국가기구에 맞서는 투쟁을 통하여 발전하였다.”¹⁶⁾ 이탈리아 수상 마시모 달레마는 왜 이탈리아 좌파가, 프랑스 좌파와는 달리,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다.¹⁷⁾ 이같은 견해 차이는 대체로 국가기구에 대한 서로 다른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아무튼 이 도전에 직면하여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국가기구의 역할을 재성찰하는 것이 좌파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14) Gérard Grunberg, Jospin et Blair en lutte sur les classes, Liberation, 7 septembre 1999

15) Dennis MacShane, Troisième voie, la seule issue, Liberation, 20 novembre 1999

16) Gerhard Schroeder, Le Monde, 20 novembre 1999

17) Massimo D'Alema, L'Expansion, Le trop d'Etat crée des inégalités, 2 décembre 1999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좌파의 정체성은 국가기구라는 도구와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구의 개입양식과 관련된 “조절” 개념, 그리고 사회의 조직과 관련된 “혁신” 개념은 어제의 좌파와 우파를(국가기구의 역할에 관한 한 우파의 생각은 언제나 동일하다) 구분하는 기준을 제공해준다. 그러므로 이 개념들은 더욱 천착되어야만 할 것이다.

셋째 문제: 불평등

불평등을 축소하는 일은 좌파의, 모든 좌파들의, 타고난 유산의 일부이다. 그러나 불평등에 관한 유럽 좌파의 성찰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분석도 옳다. 특히 예컨대 페트릭 아티스가 제기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질문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경제의 새로운 구조로부터 여러 가지 불평등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과연 불평등은 신경체구조의 필수조건인가?”¹⁸⁾

목표도 옳다. 게하르트 슈뢰더가 옹호하고 있는 듯한 단순한 “기회균등”을 넘어서서¹⁹⁾ 유럽 사민주의자들이 방어해야 할 사회모델을 구체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

방식도 옳다. 모든 유럽 사민주의자들이 전통적 도구들(공공지출의 증대 및 사회보장 국가체제를 통한 재분배)의 한계를 알았으니, 서둘러 새로운 도구들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계급, 국가기구의 역할, 불평등, 이 세 가지 문제는 - 물론 이밖에도 문제들이 많지만 - 21세기의 좌파들에게 결정적인 문제들이다. 첫 번째 문제가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사회를 분석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아마 가장 중요한, 도구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는 그것이 정녕 사회주의의 정체성 그 자체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 ❖

18) Patrick Artus, Challenges, decembre 1999

19) Gerhard Schroeder, Le Monde, 20 novembre 1999. “사민주의자들은 ‘평등’을 이야기할 경우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말해야만 할 것이다.”